

광주교육청 10년간 시험관리 점검 없었다

‘시험지 유출 사건’ 문제점과 재발방지 대책

인문고 51곳 중 31곳 인쇄실 감시하는 CCTV조차 설치 안돼
시교육청 예산 지원 늘리고 인쇄실 방법창 설치 의무화하기로
장휘국 교육감 사과...법인·학교 잘못 뎀 강력 행·재정적 조치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19일 ‘광주 고3 시험지 유출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시민 사과를 했다.
대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학교 기말고사 시험지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자 1주일 만에, 학생, 학부모 등 시민들의 불만과 불안감이 확산한 데 따른 조치다.

사건발생 초기 시교육청은 시험지 유출 사건이 특정학교 학부모, 행정실장 공모 아래 재행했다는 점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지만, ‘시험 관리가 엄격하게 됐다’는 지적이 거듭되면서 전격적으로 교육감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장 교육감, ‘시험지 유출’ 시민 사과 = 장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장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진행돼야 할 고교 기말고사 시험지가 유출돼 학생, 학부모, 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한 학교에 대한) 특별 감사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잘못이 인정될 경우 해당 법인 및 학교에 대해 강력한 행·재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경우 학교가 학업성적 관리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학부모의 과도한 욕심과 행정실 직원의 일탈로 이뤄진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사실상 광주교육의 책임자로서 사과는 하되, 이번 사건과 시교육청 사이에 분명한 선을 그은 것이다.

장 교육감은 사건 발생 직후 광주 전체 인문고 51곳을 대상으로 한 평가보안관리(시험관리) 실태 점검 결과,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제가 발생한 사립고 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 고교의 경우 학업성적관리 규정과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시험관리 실태점검 이해=교육계에서는 시교육청이 그동안 시험관리를 한 차례라도 제대로 했다면 사건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시험지 원안을 봉인조차 하지 않고 허술하게 관리해온 정황이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나면서다. 해당 학교 측이 시험지 관리를 수년 동안 허술하게 해왔다는 점에서 시교육청이 관리감독을 강화했다더라면 사전에 시정 조치가 이뤄졌거나 시험지 유출 공모자들의 범행 의지를 꺾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지적이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인문고 51곳 가운데 시험지 인쇄실 주변에 CCTV가 없는 곳이 31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고교 학업성적 관리 매뉴얼’이라는 지침만 규정했었을 뿐 최소 10년 이상 시험 관리감독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불거지면서 전체 인문고교를 대상으로 시험관리 실태 점검을 진행했다. 그 이전에는 최소 10년 이상 문제를 제대로 들여다 본 적 자체가 없었던 것 같다. 학교에 맡겨 놔뒀다”고 말했다. 대입에서의 내신의 중요성과 그에 따른 부정 ‘중문’이 교육계 안팎에서 꾸준히 거론되는 점을 고려하면 잘못을 온전히 시험지 유출 공모자와 학교 측에만 떠넘기기에선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시험지 인쇄실 CCTV설치 등 보안강화= 시교육청은 이날 재발방지 대책으로 평가 보안관리를 강화하고, 인쇄 보안 취약시설에 대한 예산지원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도 20일 17개 교육청 담당국장이 참석하는 내신 시험문제 유출 관련 긴급회의를 열고 현황 파악과 대책마련에 나선다.

시교육청은 재발방지를 위해 시험지가 인쇄되는 인쇄실 주변에 CCTV 설치를 지원하고 인쇄실 창문에 방범창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중 잠금장치가 설치된 시험지 보관용 캐비닛으로 교체할 계획도 밝혔다. 이 중 잠금장치가 설치된 시험지 보관용 캐비닛으로 교체를 적극 지원하고, 인쇄가 잘못된 파지조차 외부로 흘러나갈 수 없도록 인쇄실에 파쇄기 설치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19일 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광주 사립고교 3학년 기말고사 시험 문제 유출 사건과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를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인쇄 매수 등 ‘로그 정보’ 확인이 가능한 인쇄기 도입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현 시험지 관리 지침 내용 일부가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침을 개정해 ‘출제, 인쇄, 시험지 보관, 고사, 채점 등 전 과정에서 담당자의 역할 및 관리 절차를 상세히 지정하겠다’고 했다. 향후 시험 기간 교육청의 현장 일시 점검 계획도 밝혔다.

이 사건을 조사중인 광주서부경찰은 금명간 시험지를 유출한 행정실장과 학부모를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학교 측에 시험지 유출 의혹을 제기한 학생들은 학운위원장을 맡은 학부모 아들이 보던 유인물에 나온 수학 서술형 문제가 실제 시험에서 똑같이 출제되자 의구심을 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학생 18명 정도가 의심을 품고 학교에 신고할지 여부를 의논한 결과, 다수가 신고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이들 학생들은 정의로운 일을 했음에도 광주 전체 학생들에게 흑시 피해가 갈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차로 치어 지인 죽인 50대 살인혐의 인정

법원, 징역 10년 선고

50대 남성이 지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애초 경찰은 검찰에 도주(뺑소니)치사로 이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1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김정아 부장판사)는 19일 살인·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했지만,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유가족이 받은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가 우울증 치료로 인한 불안정한 상태라 할지라도 죄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고 선고 배경을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새벽 3시40분경

여수시 한 공원 주차장에서 노래방에 가는 문제를 놓고 말다툼 끝에 지인 B(62)씨를 때려 넘어뜨린 뒤 B씨의 몸을 차로 타고 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해차량은 B씨 소유 승용차였다. 경찰은 가해자가 상대방의 승용차로 사망사고를 냈는데도, 운전자를 단순 교통사고 사망사건 가해자로 보고 음주뺑소니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B씨의 차를 운전한 점에 주목하고 사고현장 검증과 주변 CCTV 화면·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녹음파일 등 분석에 나섰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차로 B씨를 한 차례 밟고 지나간 뒤 후진해 또다시 같은 행동을 반복한 점 등으로 마뮈 A씨의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살인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출소 5개월만에 또 살인 50대 항소심도 징역 25년

살인죄로 12년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5개월만에 또다시 살인을 저지른 5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최수환 부장판사)는 19일 노래방에서 손님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장모(51)씨 항소심에서 장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장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과 전자장치 부착 20년 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장씨가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심신 미약 상태까지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죄로 복역하고 출소 5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돼 1심의 형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지난해 10월 23일 밤 11시께 광주시 북구 문흥동 한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다른 손님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장씨는 노래방에서 자신의 노래 순서가 오지 않는다고 행패를 부렸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장씨는 2005년 1월 4일 새벽 2시 30분경 북구 모 호프집 안방에서 40대 여주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5월 출소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아이 강제로 재우다 또 사망사고...어린이집 교사 체포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원생을 강제로 재우다 숨지게 한 사건이 또 일어났다.

19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서울 강서구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영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모(59·여)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김씨는 전날 화곡동 모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남자아이를 재우는 과정

에서 몸을 누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일 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CC)TV를 압수해 분석한 결과, 김씨가 낮 12시께 아이를 업드리게 한 채 이불을 씌운 상태에서 온몸으로 울라타 누르는 장면 등을 확인해 긴급체포했다”며 “오늘(19일) 안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니코틴 함유 금연껌 때문에...노인들 어지럼증 호소 '소동'



○니코틴이 함유된 금연껌을 일반 껌으로 착각해 씹은 노인들이 어지럼증을 호소해 119가 출동하는 등 한바탕 소동.

○19일 광주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5시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 한 다세대주택 노인정에서 저녁식사를 준비하던 이모(여·82)씨 등 8명이 금연

껌을 씹고 난 뒤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는 것.

○이날 같은 다세대주택에 살던 A(80)씨가 집에 있던 금연껌을 일반 껌으로 착각해 이씨 등에게 나눠준 것으로 확인됐는데, 노인정 관계자는 “다행히 어르신들이 퇴원한 뒤 다시 노인정을 찾아와 멀쩡하게 저녁식사를 했다”며 안도의 한숨. /김한영 기자 young@

‘시험문제 유출 의혹’ 우정9급 공채 새 문제로 치른다

필기시험 당초 일정대로 21일

우정사업본부는 시험문제 유출 의혹을 받는 우정9급(계리) 공개채용 필기시험 문제를 폐기하고 새 문제로 시험을 진행한

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한 공무원시험준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오는 21일 치를 우정9급 필기시험 출제 문제를 컴퓨터로 옮기는 담당이라고 소개하며 시험문제를 미리 알려주는 조건으로 금

전을 요구한 이가 있다는 제보가 올라왔다. 우본은 수사기관에 긴급 수사 의뢰를 했으며, 수험생의 피해방지를 위해 해당 내용을 게시판에 안내했다.

또, 종전 시험문제는 유출 의혹이 제기된 만큼 폐기하고, 새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우본은 필기시험 문제를 시험출제본부의 문제 풀(POL)에서

출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우본은 “시험문제 출제 의혹으로 필기시험을 무기한 연기하는 것은 수험생들의 시험에 대한 불신과 혼란만 키우기 때문에 문제를 새로 구성해서 당초 일정대로 시험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은혜 기자 ej6621@kwangju.co.kr

상가건물 매매 [신축 상가주택]



□ 월곡시장 2분(일신아파트 · 부영아파트 부근) 산정공원 바로앞 (코너)

□ 공실 없음 (항시 임대대기)

□ 1층 ★상가 2칸★

□ 2층~3층 (원룸 9개) (투룸 2개)

□ 4층 (최고급 주택)

★ 공원앞 전망최고 ★

보 9천 · 월 600만 (용3억)

▶ 매가 9억3천만

010-7384-7800 010-6670-9800

상가매매(수익형)

상무지구 중심구역(12층중 6층 상가) 롯데마트 앞 19평 (모든 업종가능) 보5백 월 40만

▶ 시세 1억 매가 6천300만

원룸빌딩 매매

- ① 산정동(1층코너 상가) (원룸 15개)(합16개) 월세 600만 ▶ 매가 8억4천
- ② 월곡동 산정공원 1층(1층 상가) 2층~4층(원룸12개)(투룸3개) ▶ 매가 8억4천만 (월세 590만)
- ③ 월곡동시장 2분(원룸12개, 투룸2개) 총 14개 (월수익 550만) ▶ 매가 8억4천만
- ④ 전대정문2분 (원룸18개, 안잡1개) 보7천만 월700만 ▶ 매가 12억8천만(용 3억5천만 가능)

010-6670-9800 062-382-5500